

## (사)한국바이오디젤협회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바이오디젤협회(회장 박상규)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바이오디젤생산업체들의 모임인 이 협회의회는 지난 6월18일, 산자부로 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

한국바이오디젤협회에는 가야에너지, 비엔디에너지, 에코에너지, 비디케이, 쓰리엠안전개발, 단석산업의 6개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가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외에 무등바이오에너지가 정회원, 한국SGS는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개 업체는 가입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2007년 6월

말 현재 산업자원부에 등록된 생산업체 16개사다.

협회는 설립 배경에 대해 “고유가가 고착화되고 화석연료의 고갈문제가 대두되면서 온실가스감축과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해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연료 확대보급과 관련 기술 확보에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 정부도 법과 제도의 준비를 통하여 바이오디젤의 확대보급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간 또는 정유사와의 이해 조정 필요성에 의해 설립하게 됐다”고 전했다.

협회는 앞으로 회원사와 함께 바이오디젤업계의 현안에 공동 대처하고 회원사의 권익보호 및 이미지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바이오디젤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건의, 바이오디젤 사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사업,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해외 플랜테이션사업 등을 통한 저렴하고 다양한 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채생산 시범사업 등 국내 원료확보 방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농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바이오디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회의 초대회장에는 박상규(朴三圭) 전 공업진흥청장(제11대)이 선임되었다.

박상규 회장은 경북사대부고와 경북대를 졸업하고, 상공부 중소기업국장, 기획관리실장, 차관보, 공업진흥청장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등을 역임한바 있다.

# 풀뿌리 시민단체 '에너지전환'

지난 2004년도에 설립된 에너지대안센터가 '에너지전환'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풀뿌리 시민단체 에너지전환(Centre for Energy Alternative)은 한국에서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단체는 고갈되어 가는 화석연료는 석유위기와 에너지 전쟁을 일으키고 기후변화라는 생태위기를 야기하고 있고 반면에 재생가능 에너지는 지구 어느 곳

에나 골고루 퍼져 있으며 고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에 풀뿌리 시민단체 에너지전환은 바로 화석연료와 원자력이 가져온 위기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해결하는, 에너지 전환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류문명은 생태적인 전환을 통해서만 지속가능한 상태에 도달할 것이라는 이 단체는 생태적인 전환의 핵심을 에너지 전환으로 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생태적 전환을 이룩하는 비전을 품고 활동하고 있다.